

2006학년도

석사학위(M.A.) 청구논문

칼빈의 교회교육을 통해 본

성인교육의 방안 모색

총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이 선 영

칼빈의 교회교육을 통해 본

성인교육의 방안 모색

지도교수 정 정 숙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17일

총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이 선 영

# 이선영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6년 11월 17일

총신대학교 대학원

## 감사의 글

총신대 대학원에서 첫 수업을 받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신실하게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특히 교회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논문을 감당하면서 지금의 교회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도 상한 목자의 심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강한 도전과 함께 참된 교회교육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의 학업을 통해 배우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본 논문에서 집약,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정숙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스승으로서 학문과 삶을 통해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지면을 빌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관심과 적절한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한춘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으로 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한상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수업을 통해 기독교교육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기독교교육학의 핵심을 짚어주셨던 김희자 교수님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학업을 마치기까지 저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저의 부모님들과 섬세한 기도로 섬겨주신 시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학업으로 인해 세심하게 보살펴주지 못했지만, 스스로 자기 일을 잘 알아서 감당하고 오히려 저를 도와주었던 사랑하는 두 딸, 예림이, 예영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저를 밀어주고 도와준 사

랑하는 남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저의 대학원 생활 동안,  
그리고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영암교회 김성기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3. 연구의 제한점 .....	7
II.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성인교육의 필요성 .....	8
1. 교회의 교육적 사명 .....	8
1.1. 교회의 교육적 사명 .....	8
1.2. 교회교육의 성경적 고찰 .....	12
1.3. 교회교육의 역사적 고찰 .....	16
2. 교회교육에서 성인교육의 필요성 .....	20
2.1. 기독교교육적 측면 .....	21
2.2. 인간발달적 측면 .....	25
2.3. 교회사역적 측면 .....	29
III. 성인교육의 모델로서의 칼빈의 교회교육 .....	35
1. 칼빈의 교회교육의 특징 .....	35
1.1. 하나님의 교육으로서의 교회교육 .....	35
1.2. 성인중심의 교회교육 .....	38
1.3. 성경중심의 교회교육 .....	43
2. 칼빈의 교회교육의 의의 .....	48

<b>IV. 성인교육의 방안모색</b> .....	<b>51</b>
1. 말씀 중심의 교육 .....	51
1.1. 성인교육의 중심으로서의 말씀교육 .....	52
1.2. 말씀교육을 통한 영적 유익들 .....	54
2. 말씀교육의 방법 .....	68
2.1. 말씀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점들 .....	69
2.2. 새로운 방안 모색 .....	71
<b>V. 결    론</b> .....	<b>85</b>
1. 요약과 결론 .....	85
2. 제언 .....	89
<b>참 고 문 헌</b> .....	<b>90</b>

## 국 문 요 약

지금까지 성장 일변도로만 달려온 한국교회는 외적으로는 놀랄만한 급성장을 이루었는지 몰라도, 신자의 내적 성숙을 도외시 한 결과로 인해 내면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교회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위해 신자의 내적 성숙으로 목회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교회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성인 신자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을 교회교육의 중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 내용은 성경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성인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면과 삶이 변화되며, 나아가 사회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성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성인교육의 모델로서 칼빈의 교회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교육적 소명을 부여받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한 전도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이와 함께 교육 또한 교회의 중요한 소명 중의 하나이다. 교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쉼마 텍스트(text)로 교육하셨고, 또 시대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통해 그 백성을 교육하셨다. 이는 신약에 와서 회당 중심의 교육과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으며, 초대 교회의 교육 또한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도 교회교육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즐기차게 이어져 내려왔으며, 중세 시대 교회가 교육을 소홀히 하였을 때 어떻게 부패



하였는가 하는 것은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세의 이러한 타락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개혁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교회교육의 역사는 경건주의 운동과 주일학교 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교회는 특별히 성인을 주요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 또한 성인은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존재이므로 그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성인을 위한 교회교육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인은 교회와 사회의 교량적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교회사역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교육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교회교육은 오늘날 교회교육에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칼빈은 교회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성장세대와 초신자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썼지만, 무엇보다 성인 신자들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화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성인 교육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었다. 성경을 중심한 교육을 강조했던 그는 성경말씀을 체계화한 교리의 교육에 힘썼으며, 설교도 말씀을 강해한 교육설교를 하였고, 성례 또한 말씀과 연관시켜 교육의 방편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교육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첫째, 교회의 본질을 재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성경말씀의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에 전념해야 함을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셋째, 교회생활 전반을 교육과 연결시킴으로써 교육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성인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칼빈의 교육에서처럼 성인교육의 중심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교육은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며,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되도록 함으로써 신자의 성화를 도와준다. 또한 말씀교육은 신자들 내면의 문제들을 치유하는 상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줌으로써 경건훈련의 방편이 된다. 말씀교육은 또 말씀에 기초한 봉사의 개념을 가르침으로 올바른 헌신으로 이끌어 주며, 성인 신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성인 성경교육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점은 첫째, 말씀교육이 지식전달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삶에 적용시켜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주입식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인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자기 주도식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전도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인 신자 내면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른 성인 성경교육의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 성경공부여야 한다. 둘째, 귀납적 성경공부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 대화로 이루어지는 성경공부여야 한다. 넷째, 삶과 연결되는 성경공부여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점으로 하는 성경공부여야 한다. 여섯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공부여야 한다. 일곱째, 기독교 교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소감 나눔(sharing)의 시간이 중요하다. 아홉째, 합심기도로 말씀공부를 끝맺어야 한다. 열째, 절기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경공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인도자는 각 사람의 목자가 되어야 하며, 둘째, 각 사람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고, 셋째, 말씀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넷째, 교회생활 전반과 연결시켜 교육해야 한다.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을 무시한 채, 다른 무엇으로 목회를 이끌고자 하면 안 되며, 본질에 기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1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초기 성도들의 열성적인 전도와 헌신으로 인해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1993년 미국의 월간 종교잡지인 「크리스찬 월드」 지가 집계하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개신교회 가운데 선정된 50개의 대형교회 중, 한국 안에 있는 교회가 무려 23개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1)</sup> 1945년 해방 당시 38만 명에 불과하였던 기독교인수가 1992년에는 무려 1,2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는 통계 또한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sup>2)</sup>

하지만 이러한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곧 신자들의 질적 성숙과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의 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교회의 성인 평신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지난 1세기 동안의 교회의 놀라운 외적 성장이 과연 내실 있는 성장이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또한 교회의 세속화 현상과 신자들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사회의 지탄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향해 왔던 목회 방향의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성인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표상들로서 신앙적으로 언제나 본을 보이는 자들로 사회 속에 나타나야 한다.<sup>3)</sup>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

1) 고용수, “한국교회 성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3. 6), 288.

2) *Ibid.*

3) 정일웅, “평신도 리더십 개발”, 월간목회 (서울: 월간목회사, 1996. 9), 39.

을 감당하며, 세속문화에 동화되기보다 오히려 바른 기독교신앙으로 이에 도전하고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치 못하고, 어떤 것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인지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삶과 문화와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당황하거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sup>4)</sup> 또한 신앙과 삶의 괴리 속에서 표리부동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그동안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며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던 한국 교회의 당연한 결과이다. 내적 성숙이 따르지 않는 외적 성장은 내면이 연약한 절름발이 신앙인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

한춘기는 교회의 참된 목표는 교회 밖을 향해서는 전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교회 안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sup>5)</sup>이라고 하였다. 즉 교회는 전도를 통한 복음전파와 함께 교육을 통한 신자들의 질적 성숙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실제로 교회의 양적 성장이란 신자들의 질적 성숙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신자들의 내적 성숙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바로 교회교육이 필요하다. 교회교육은 전도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참된 교회교육은 복음진리를 통해 얻어진 신앙이 신자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강희천의 지적처럼 이제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행해지는 전도지향적인 교회교육<sup>6)</sup>

---

4) *Ibid.*

5) 한춘기, “총체적 사역으로서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논총 제6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2000), 175.

6) 강희천, “교회교육의 문제 그 분석과 과제”, 목회현장과 성서연구; 제8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유니온 학술자료원, 1988), 253.

에서 신자들의 내면의 성숙을 돕는 성화지향적인 교회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성인교육은 성인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교회교육에서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성인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장과 선교사역에 참여할 중심세력이다. 또 사회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쳐야 하는 평신도이다. 무엇보다 성인은 교회와 사회의 교량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회교육은 성장세대만을 중심으로 교육하거나 성인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새신자의 교육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교회의 성인교육은 그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야만 한다. 교회 성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성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정숙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교회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로 인해, 즉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중요한 성경 역사나 이야기들도 모두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성구들을 몇 년 동안이나 외워 왔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 구절들은 다 암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인해 교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은 성인기에 와서 더욱 필요하며, 이는 성경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와 끊임없이 변화를 더해 가는 성인기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진리의 적용은 성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그럼 이러한 성인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교회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바른 교회성인교육의 모델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문

---

7)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0), p. 285.

제제기를 하게 된다.

그 동안 한국교회에서 성인교육에 사용되었던 교재로는 주로 「크로스웨이 성경연구」나 「베델 성서연구」 등이 있다. 특별히 「크로스웨이 성경연구」는 성경의 숲을 볼 수 있다는 점, 즉 성경을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꿰뚫어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여러 교회에서 성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왔다.

1980년대부터는 대학생 선교단체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들이 교회에 소개되면서 이를 성인교육의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도와 새신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코스를 교회성인교육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다. 최근에는 평신도 신학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 성인 평신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평신도를 교회 사역의 리더들로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 가운데 셀 그룹 중심의 목회로 전환하는 교회들 또한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셀 그룹들을 통해 예배, 교육과 양육, 전도와 선교, 교제, 봉사와 사역 등을 실시하고, 이를 섬길만한 평신도 리더를 양육하기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기간의 성경공부와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만으로 성인의 내적 성숙을 도울 수는 없다.

성인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이어야 한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마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다(딤후 3:16-17). 교회교육의 목적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케 하는 것(엡 4:12-13)인만큼, 교육의 주된 교재는 성경이어야 한다.

제임스 D. 스마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과 생활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기독교교육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였다.<sup>8)</sup> 그리고

---

8) 제임스 D. 스마트,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장차 복음을 증거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중심은 성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또한 성경은 몇 주 코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한다고 해서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제임스 D. 스마트는 '성경은 무진장의 보고(寶庫)'라고 말하면서 성경만도 일평생 연구하기에 족한 분야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교육은 일생 동안 계속 해야 할 사업으로서 결코 완성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sup> 그의 주장처럼 성경을 단시일의 프로그램을 좇아 교육시킴으로써 성인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교육의 주된 교재를 성경으로 삼아야 하며, 또 일생 동안 꾸준하고 계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를 가르쳐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회교육에서 성인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으로 성경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교회가 많은 일 중에서도 왜 우선적으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교회교육을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교회의 교육적 사명 중에서 특히 성인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적으로, 인간발달적으로, 교회사역적으로 성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성인교육의 모델로서 칼빈의 교회교육을 선행연구로 하였다.

셋째, 성인 신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 책임 있는 복음증거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기

---

회, 2000), p. 148.

9) *Ibid.*, pp. 140-50.

10) *Ibid.*, p. 146.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성인중심의 바른 성경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말씀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밝혔다. 2장 1절에서는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으로 고찰 했으며, 2절에서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 중에서 특별히 성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기독교교육적 측면과 인간발달적 측면, 또 교회사역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교회성인교육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칼빈의 교회교육에 대해 살폈다. 그의 교회교육의 특징들을 3가지 면에서 고찰하고, 이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4장에서는 칼빈의 교회교육에서 얻어진 통찰력을 기초로 해서 성인교육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 성인교육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성경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와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인 말씀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안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내용의 요약과 함께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이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위해서는 김득룡의 「기독교교육원론」과 정정숙의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사」, 그리고 제임스 D. 스마트의 「교회의 교육적 사명」 등의 문헌을 사용하였다. 또 성인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측면, 인간발달적 측면, 교회사역적 측면에 대한 고찰



은 정정숙의 「기독교교육학」, 「인간발달과 상담」(1), (2), 그리고 한춘기의 「기독교 교육신학(1)」과 김성욱의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를 주요 문헌으로 사용하였다. 칼빈의 교회교육에 대한 연구는 정정숙의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과 양금희의 「종교개혁과 교육사상」을 사용하였으며, 성인교육으로서의 성경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일웅의 「교육목회학」과 정정숙의 「기독교상담학」, 그리고 레티 M. 러셀의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을 주로 사용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지금 한국교회 내의 성인교육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 없고, 문헌 중심의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연구의 목적이 성인교육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성경교육을 개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제시한 점이다.

## II.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성인교육의 필요성

### 1. 교회의 교육적 사명

#### 1.1. 교회의 교육적 사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전 1:1-2; 엡 2:19; 요 1:12-13; 골 1:13; 벧전 2:9).<sup>11)</sup>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존재다. 즉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개신교회는 바로 이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목회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소명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sup>12)</sup> 찰스 밴 엔겐(Charles Van Engen) 또한 지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God's Missionary People)이라 부름으로써 선교적 소명이 지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소명임을 밝혔다.<sup>13)</sup>

하지만 교회의 소명이 전도와 선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

11)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p. 19.

12) *Ibid.*, p. 20.

13) 찰스 밴 엔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5)를 *Ibid.*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또한 복음전파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교육적 소명 또한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민족복음화의 목표 아래 전도운동을 통해 양적 부흥을 꾀하는 목회를 해왔다. 그 결과로 한국 국민 중 1/4이라는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과연 그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을지, 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질적 성숙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아야만 한다.

한스 웨버(Hans R. Weber)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첫째 질문은 교회가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느냐에 있다. ...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선교는 통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sup>14)</sup> 이처럼 통계상으로 본 한국교회의 외적(양적) 성장과 내적(질적) 성숙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sup>15)</sup>

성경은 교회가 그 출발의 역사에서부터 가르치는 교육적 사역과 함께 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sup>16)</sup>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보면, 제자양성의 사역이란 믿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말씀 전파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교회의 교육적 소명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 부지

---

1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5), p. 52.

15) 고용수, *op. cit.*, 288.

16)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 1993), p. 109.

런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그 출발부터 교육적 사명과 함께 했다.

정일웅은 우리나라 한문 표기의 '敎會'라는 말은 가르칠 '교(敎)'자와 모임 '회(會)'자로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 모여온 무리(하나님의 백성)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sup>17)</sup> 즉 교회는 목회사역의 현장으로서 그 중심인 교육의 역할이 막중함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sup>18)</sup> 제임스 D. 스마트 역시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선교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교육에도 주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리차드 R. 오스머 또한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 가르쳐야 하며, 다음 세대에 성경을 이해할 해석의 한 전통을 전수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는 심지어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갈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sup>20)</sup>

이처럼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였음에도 현 한국교회는 여전히 예배와 설교를 통한 말씀선포에 치중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교육관은 없어도 예배당만큼은 크게 잘 짓고자 하는 모습은 한국교회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절름발이 목회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설교와 교육은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제임스 D. 스마트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이것을 가르치는 일이라 하였다. 따라서 교회에는 설교와 교육이 함께 늘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

17) *Ibid.*, p. 110.

18) *Ibid.*

19)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19.

20) 리차드 R. 오스머, *교육목회의 회복*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p. 116.

21)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29.

무엇보다 참된 설교에는 교육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노르만 E. 하퍼는 강단에서의 설교는 성경적 교육학의 원칙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수년간 교회에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내용에 대해 무지한 것은 설교를 통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스탠리 그렌(J. Stanley Glen)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여 하는 설교는 성경 각 책과 구절의 전체성을 파괴하고 단편화할 뿐 아니라, 수년 동안 수백편의 설교를 듣고도 개인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신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sup>22)</sup> 곧 참된 설교는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참된 교육은 선포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설교와 교육은 모두 교회의 중요한 소명이다.

최근 십여 년 전부터 교회가 예배(설교)를 통한 말씀선포뿐 아니라, 교육의 소명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지면서 교육목회로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일웅은 교회의 질적 성숙은, 이는 오직 교육으로만 가능하다는 목회자 자신들의 인식변화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는 교육적 목회관에 의하여 사역되는 목회가 되도록 목회관에 대한 시각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정정숙 역시 현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마 28:18-20)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는 교육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4)</sup> 이처럼 ‘교육하는 교회’는 바로 지금 현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교회는 더 이상 외적인 양적 성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센 타류와도 같은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

---

22) 노르만 하퍼,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p. 146.

23) 정일웅, 교육목회학, p. 113.

24) 정정숙, *op. cit.*, p. 311.

고,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잉어와도 같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성숙을 위한 교육을 해야만 한다.

## 1.2. 교회교육의 성경적 고찰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중요성은 비단 최근의 기독교학자들의 문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 중요성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교육의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함께 셰마(shema)라는 신명기 6장 4-9절의 교육명령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셨다.<sup>25)</sup>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고 구원해 내신데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먼저는 자신의 전존재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sup>26)</sup>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바로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 제사장들에게 교육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을 통해 실시된 교육이 바로 율법 교육이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제사장의 제1차 직무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희생제를 드리는 중재적 사역이었으며, 제2차 직무는 바로 율법의 해석자이자 교사인 교육적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또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인데, 10절의 레위 자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에 이 교육의 사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

---

25)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pp. 23-24.

26)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22.

27) 정정숙, *op. cit.*, p. 29.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신 33:1)

제사장직의 이러한 교육적 소명은 역대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역대하 17장 7-9절 말씀에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유다 모든 성읍들을 돌게 한 내용이 나온다.<sup>28)</sup>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와 함께 교육의 사역을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또한 말씀선포의 사역과 함께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무엘의 경우, ‘선지학교’를 통해 한 교육집단을 형성하여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지학교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벤엘과 여리고 등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sup>29)</sup> 또 엘리야와 엘리사 뿐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주위에도 늘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음을 통해 선지자들의 교육사역을 엿볼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설교의 사역과 함께 이런 제자들의 무리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sup>30)</sup>

포로기 이후부터는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였다.<sup>31)</sup> 특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 대각성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였는데, 에스라는 학사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깨닫도록 하는 교육의 임무를 감당하였던 것이다(느 8:8). 이처럼 서기관들은 주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가며 해석해 주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

---

28) 찰스 G. 샤플, “장년교육”, J. 에드워드 헤익스 편, 기독교교육학 개론, 정정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9), p. 252.

29) *Ibid.*, p. 65.

30)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25.

31) *Ibid.*

히 나타난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특성은 말씀 선포, 교육, 치유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예수님의 말씀 선포사역과 교육의 사역을 확연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무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따로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친히 깨달아 알도록 교육하셨던 것이다.

페리 G. 다운즈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기초하여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육사역이 바로 무리에 대한 연민의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독교교육은 교회가 행하는 가장 궁핍한 사역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sup>33)</sup> 예수님은 이처럼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늘 몰려오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 예다. 일반 대중들 또한 예수님을 ‘선생’ 또는 ‘랍비’라고 불렀으며,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의 교육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sup>34)</sup> 마가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그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였으며(막 4:1-2, 6:2-6, 8:31, 9:31, 12:35),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서도 마태는 ‘가르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가리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 하니라”라고 함으로 예수님의 설교의 사역과 함께 교육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sup>35)</sup>

---

32)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40.

33) 페리 G. 다운즈, 기독교교육학 개론, 엄성옥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8), p. 41.

34)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p. 68.

35)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28.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요 13:13)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을 인정하셨다.<sup>36)</sup>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교사’였고,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교사<sup>37)</sup>로서 그 공생애 기간 동안 말씀 선포, 치유와 함께 교육의 사역 또한 중점을 두고 감당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교육 사역은 그 제자들인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진다. 사도들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교육명령(Great Commission)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복음 선포와 가르침을 계속하였다.<sup>38)</sup> 사도행전 5장 42절의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 하니라’는 말씀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설교)와 가르침(교육)이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의 기초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도행전 5장 21절, 25절 말씀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가르치는 사역에 얼마나 주력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이처럼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였다.<sup>39)</sup>

사도 바울 또한 전도자로서 또 교사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복음을 위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묘사했다(딤후 1:11).<sup>40)</sup> 그는 에베소 사역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헬라식 토론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으며(엡 19:19-20),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디모데 자신의 교역에 있어서나 교회 전반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sup>41)</sup>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심지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전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

36) 김득룡, 기독교교육원론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pp. 180-81.

37) 정정숙, *op. cit.*, p. 70.

38) *Ibid.*, p. 73.

39) 김득룡, *op. cit.*, p. 182.

40) 페리 G. 다운즈, *op. cit.*, p. 43.

41)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28.

교육의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였음을 보여준다.<sup>42)</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신, 구약 성경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해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페리 G. 다운즈는 “교육은 교회가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성경적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교육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경은 교회가 영적 성숙을 위해 교인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였다.<sup>43)</sup> 또한 제임스 D. 스마트는 “훌륭한 설교는 역시 교육이요, 훌륭한 교육에서는 설교자의 선포의 소리가 들린다”<sup>44)</sup>고 하였다. 그만큼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교육은 설교를 통한 말씀 선포의 사역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 1.3. 교회교육의 역사적 고찰

교회교육의 역사는 구약시대의 회당 중심의 교육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회당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포로 당시 바벨론에서 생겼다고 보는 의견이 유력하다.<sup>45)</sup> 유대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으며, 회당 중심의 교육을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자자손손 전수할 수 있었다. 옛 격언에 ‘유대를 멸망시키려면 먼저 학교(회당학교)를 멸망시키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sup>46)</sup> 유대 사회는 철저히 회당 중심의 사회였다. 회당에서의 교육은 예배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기도, 성경 낭독, 성경 해석 등을 하였다. 이런 교육은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

42) 김득룡, *op. cit.*, p. 183.

43) 페리 G. 다운즈, *op. cit.*, p. 46.

44)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29.

45)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p. 36.

46) 김득룡, *op. cit.*, p. 22.

47) 정정숙, *op. cit.*, p. 36.

회당 중심의 교육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초등 및 고등의 회당 학교가 있어서 이곳에서 소년들은 성경 읽기와 외우기를 배우고 나중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까지 배웠다.<sup>48)</sup>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가르치셨다.<sup>49)</sup>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서 사도들 또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대 교회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신앙으로 철저히 가르쳐야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게 되었으며, 회당에서 예배와 함께 교육하는 형태는 그대로 계속되었다.<sup>50)</sup> 사도들의 영향 아래 교부들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교부시대에는 회당 외에 학교를 따로 세워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대화식, 문답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알렉산드리아 문답학교가 있으며,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sup>51)</sup> 이외에도 유명한 문답학교로 안디옥 문답학교가 있었는데, 안디옥 학파는 주로 귀납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하였으며, 성경을 비유적 방법으로 해석하기보다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하였다.<sup>52)</sup>

하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초대교회의 복음적 신앙과 교육에의 열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하였다.<sup>53)</sup> 초대교회에는 이단 사상과 세속적 철학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적 응전이 필요하였고,<sup>54)</sup> 또 새로운 개종자들을 위한 철저한 신앙교육이 필요하였기에 교육에 주력하였지만, 중세에 오면서부터는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

---

48)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63.

49) 김득룡, *op. cit.*, p. 22.

50)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64.

51)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p. 83.

52) *Ibid.*, pp. 83-84.

53) 김득룡, *op. cit.*, p.26.

54)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43.

레라고 강조한 결과 교회교육은 부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성경지식에 무식하였으며, 예배를 통해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가르칠 수도 없었다.<sup>55)</sup> 이처럼 중세 교회의 타락은 기독교교육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56)</sup>

중세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교회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종교개혁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시키고, 교리문답을 부활시켰으며,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칠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sup>57)</sup> 무엇보다 종교개혁기 교육의 특성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말씀이 없이 성례전이나 미술, 드라마와 같은 상징으로만 교육했던 중세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교육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주로 예배 시 강해설교를 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가르쳤으며, 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평신도들도 누구나 성경을 읽도록 하였다. 또한 성경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보다 쉽게 가르치는 요리문답 교육을 실시하였다.<sup>58)</sup> 이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기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종교 개혁자들의 노력과 시범으로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회복하였던 것이다.<sup>59)</sup>

하지만 근세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도전으로 인해 교회는 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의 주도권 또한 교회에서 세속 국가로 옮겨지는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전과 응전의 반복되는 역사는 교회

---

55)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64.

56) 김득룡, *op. cit.*, p. 26.

57)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64.

58)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47.

59) *Ibid.*, p. 48.

교육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한 응전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세속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은 교회의 내면적 개혁 운동으로서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또한 성경의 순수하고 단순한 교훈을 중요시하고, 신앙적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의 영적 개혁을 부르짖었다.<sup>60)</sup>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부흥전도 운동이 영국과 미국,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함께 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었다.<sup>61)</sup> 최초의 주일학교는 물론 교회와는 무관하게 영국의 한 평신도인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 1735-1811)를 통해서 빈민가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곧 각 도시로 퍼져나갔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에서와는 달리 주일학교 운동이 종교교육에만 국한되게 되었으며, 이 형식이 유럽 대륙과 미국에도 보급되게 되었다.<sup>62)</sup> 특히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19세기의 선교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으며,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 교육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미국 주일학교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개설되어 교회 교육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어린이뿐 아니라 전교인으로 하여금 주일학교 학생이 되게 하여 '가르치는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훗날 주일학교 운동이 진보주의 교육적인 종교교육으로 활성화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적인 새로운 교육 이론들이 개발되기도 하였지만,<sup>63)</sup> 주일학교를 통한 교회교육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으로 교회교육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회가 성

---

60) *Ibid.*, p. 52.

61)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p. 65-66.

62) *Ibid.*, p. 66.

63)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57.

경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하였을 때는 신앙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교회가 말씀교육을 소홀히 하였을 때는 그 결과로 부패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말씀교육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그 설립부터 교육적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치 않을 때, 쇠퇴할 수밖에 없으며 타락하여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어갈 수밖에 없다.

## 2. 교회교육에서 성인교육의 필요성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있어서 성인교육은 교회교육의 중심이 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교육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sup>64)</sup>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주일학교에서 장년부가 제외되고, 성인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을 대다수의 교회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교회교육에 대한 대단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교육은 성장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손삼권은 “교회교육이 어린이나 청소년만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 목회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교육적 과제는 주일학교 중심의 교회교육에서 탈피하여, 교회 전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고 증거 하는 교육 공동체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65)</sup>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인교육의 좋은 본을 보이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패역한 시대에서 노아 한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

64) *Ibid.*, p. 272.

65) 손삼권, “교회교육의 현실과 전망”,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 92.

후에는 아브라함 한사람, 다음엔 이삭, 그리고 야곱을 부르셔서 친히 1:1로 구원의 위대한 구속적 진리를 가르치셨다. 출애굽 시기에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도덕적, 의식적 그리고 법률적인 율법으로 아주 세밀하게 교육시켜야 했다.<sup>66)</sup>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결국은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인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말 2:7-8).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신앙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열 명의 성인 남자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세우고, 선지서들과 시가서들을 중심으로 성인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영적 공백기였던 신구약 중간기에는 회당의 성인 교육과정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강박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교육사역을 감당하셨다. 주로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택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교육을 하셨다.<sup>67)</sup> 예수님의 교육은 성인교육의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성인교육이 기독교교육의 주축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교육을 성장세대에만 국한시키고 성인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뜻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성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 이를 교회교육의 중점적인 소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만 한다. 본 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성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독교교육적 측면, 인간발달적 측면, 교회사역적 측면 등 3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1. 기독교교육적 측면

기독교교육이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 내도록

---

66) 찰스 G. 샤프, *op. cit.*, p. 251.

67) *Ibid.*, p. 252.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교육의 기능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8)</sup> 반즈(Albert Barnes)는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온전케 하다’의 의미를 ‘어떠한 것을 제자리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석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였다.<sup>69)</sup>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교육사역의 상호 보완적인 사역이다. 즉 교육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상대로 인간의 잃어버린 원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것이다.<sup>70)</sup>

이러한 기독교교육의 본질은 기독교교육의 목적과도 연계된다. 물론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기독교 교육철학과 교육신학에 따라 각 교단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또한 학자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다. 허버트 번(Herbert Byrne)은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이며, 그 교육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하였다.<sup>71)</sup> 또 로이스 E. 르바

---

68) 한춘기, 기독교교육신학(1)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p. 32.

69) Albert Barnes, *Barnes' Notes on Ephesian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16th printing), 79를 *Ibid.*에서 재인용.

70) *Ibid.*, p. 33.

71) Herbert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lford: Mott Media Press, 1981), pp. 105-6을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25에서 재인용.



(Lois E. LeBar)는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그리스도 중심성이 참 목표라고 하였다.<sup>72)</sup> 케네스 코버 (Kenneth I. Cober)는 교회교육사역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고(마 28:18-20),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엡 4:11-16)이라고 하였다.<sup>73)</sup> 이들의 주장을 보면,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 학자들은 이와는 달리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기독교교육의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에서 이를 찾아야만 한다. 이미 언급했지만, 에베소서 4장 12-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 직분 중에 '교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교사의 직분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의 직분과 동일선상에 놓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교육의 목표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여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교육의 본질인 '회복',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교육의 목표는 이처럼 교육의 본질인 회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하나님의 형

---

72) Lois E. LeBar, *Education That is Christian* (Old Tappan, N. J. : Revell Co., 1952), p. 194를 *Ibid.*, p. 33에서 재인용.

73) Kenneth I. Cober, *Shaping the church's Educational Ministry: A Manual for the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Valley Forge: Judson Press, 1971), pp. 7-8을 한춘기, *기독교교육신학*(1), p. 162에서 재인용.

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교회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을 경험한 신자는 영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아이와도 같은 상태이다. 따라서 갓 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며 부지런히 자라나야 하듯, 거듭난 신자들 또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한다. 즉 말씀의 젖인 성경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벧전 2:2). 이는 신자의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작업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화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며,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오스머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욱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장한다고 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sup>74)</sup> 이는 교회교육은 성장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말이다.

우리의 성화가 일생 동안 일어나는 과정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돕는 교육사역 또한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인식할 때, 교회교육에서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결코 배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독교교육적 측면에서 성인교육이 왜 필요한가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인간의 본래의 존재목적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의 목적은 “모든 완전함과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그와 함께 절대적인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즐겨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sup>75)</sup> 인간이 이런 본래의 존재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또 “우리가 보았듯이 지식과 덕성과 신앙의 씨앗은 나면서부터

---

74) 리차드 R. 오스머, *op. cit.*, p. 69.

75) J. A. Comenius, 대교수학, 정확실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87), 제2장 1을 한춘기, 기독교교육신학(1), p. 33에서 재인용.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실제적 지식과 덕성과 신앙 자체는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도와 교육과 행함으로 습득되지 않으면 안 된다”<sup>76)</sup>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목적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존재목적은 성장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존재목적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기독교교육에서 종결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전히 미완성의 존재로 남아있는 이상, 기독교교육이 이 땅에서 종결지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내면에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 본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본 교회가 성인교육을 해야만 하는 절대적 이유이다.

## 2.2. 인간발달적 측면

기독교교육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인간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도 교회의 성인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의 교회에서 성인교육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성인은 이미 성장이 끝난 존재, 즉 더 이상 발달단계를 거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성인을 완성된 자로 잘못 인식할 때, 성인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며, 성인을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가르치는 자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 과정에서 발달과

---

76) J. A. Comenius, *Ibid.*, 제6장 1을 *Ibid.*에서 재인용.

변화를 겪는 존재로서 발달은 더 이상 청년기까지의 문제가 아니다.<sup>77)</sup> 인간발달을 이렇게 임신부터 사망까지의 인생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체계적 변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 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을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게 된다.

이미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학마다 사회교육원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도 노년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성인교육의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기독교교육의 선두역할을 해야 할 교회에서 성인교육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가야 할 교회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교회는 전인교육과 생애교육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의 개념을 전환해야만 한다.<sup>78)</sup>

성인은 이미 발달단계가 끝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발달의 과정 속에 있으며, 또 각 발달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과업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성인기는 보통 발달심리학에서 성인전기(25세-35세)와 성인중기(35세-65세), 그리고 성인후기(65세-사망)로 구분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교회의 장년부에 해당하는 성인들의 교회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성인중기의 발달특성과 과업만 살펴봄으로 이에 따른 교회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고자 한다.

성인중기는 인생의 허리와도 같은 시기로서 그 특성에 따라 학자들은 여러 이름으로 이 시기를 지칭하고 있다.<sup>79)</sup>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인중기를 성취의 시기로 보는 것이다. 성인중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의 절정에 이르게 되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한 열매를 수확하게

---

77) 정정숙, 인간발달과 상담(1)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6), p. 17.

78)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272.

79) 정정숙, 인간발달과 상담(2)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6), p. 197.

되고, 직업적인 목표가 달성되며, 경제적 및 사회적인 위치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므로 인생에서 이 시기를 성취의 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책임의 시기로 보는 것이다. 성인중기는 성취와 함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이다. 자녀의 교육문제와 노인부모의 부양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책임을 안고 있는 시기이다. 때문에 이로 인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셋째는, 성인중기를 샌드위치 시기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성인중기가 노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이 시기를 망각의 시기로 부르는 경우이다. 이는 이 시기가 청년도 노년도 아닌 애매한 과도기적 성격을 수반하고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노년을 앞에 두고 있는 성인중기의 불안하고, 두려우며, 현재 자신의 인생 단계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내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텅 빈 보금자리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대부분 이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대학진학이나 군 입대, 취업 혹은 결혼 등으로 인해 가정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고, 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부관계에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자녀양육활동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목표나 과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섯째는, 적응의 시기로 보는 견해인데, 이는 삶의 목표를 실현하고 난 후에 오는 권태감과 중년의 고독감,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해 조부모가 된다는 두려움 등의 내면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관이 확장되고 더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보다 풍성한 상호관계에 참여를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sup>80)</sup>

---

80) *Ibid.*, pp. 198-202.

이런 특성과 함께 성인중기에는 신체적 노화와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며, 생리적 변화로 인한 갱년기를 겪게 된다. 신체적 변화와 함께 또한 이 시기에는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감퇴가 시작된다. 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에는 여러 변화로 인한 성격의 변화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인중기는 위기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인교육을 통해 이 시기의 성인들이 좀 더 유연하게 이 시기를 대처하며,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야만 한다. 또한 평생 발달적 측면에서 이 시기의 성인들이 자신들의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에릭슨(Erik Erikson)은 그의 8단계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성인중기를 생산성 대 침체감의 시기로 특징지었다. 그가 말하는 생산성이란 타인과 나누어 주고 갖는 느낌,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미래 세대의 복지 및 그들이 살아갈 세계에 대해 염려하는 것, 개인의 취미나 능력, 재능들을 사용하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업적을 이루려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침체성이란 자아몰입으로 자아중심 또는 자아탐닉, 침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인데, 이는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결여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에 더욱 더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sup>81)</sup>

그의 이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인중기의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시기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 삶의 영역까지 교육해야만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관대하기보다 비판적이 되고, 자기에게로만 몰입하며, 노년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기 쉽고, 또 경제적 압박감과 상실감, 실패감 등에 빠지기 쉬운 이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방향을 잡도록 도와야 한다.

---

81) *Ibid.*, p. 209.

또 이 시기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조명하는 시기이므로, 교회교육을 통해 성경말씀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성인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이 자신들의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인교육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 현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또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로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섬기며 봉사하는 등 영적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교육해야만 한다.

### 2.3. 교회사역적 측면

이제 끝으로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교회사역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들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형성과 지탱을 위한 주체 멤버이고, 또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청지기적 삶이 요청된다. 따라서 성인들의 성숙함은 곧 건전한 가정,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사회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인들이 가정, 교회,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체 멤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인교육에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이들의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생활'의 태도형성이 가정의 교회성 회복, 교회의 갱신, 그리고 사회의 선교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82)</sup> 넬슨(C. E. Nelson)은 "성인들은 그들이 처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육은 성도들을 위한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sup>83)</sup> 그의 지적처럼 성인들은 사회 각 계층 속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빛과

---

82) 고용수, *op. cit.*, 288.

83) C. E. Nelson, "Our oldest problem", in P. O'Hare(ed.) *Transformation in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9), p. 69를 *Ibid.*에서 재인용.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회는 평신도 특히 성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교회란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sup>84)</sup>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교회의 소명이 목회자나 교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부여된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85)</sup>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복음전파의 동역자들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것”<sup>86)</sup>이다. 즉 하나님은 지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가족관계, 사업장, 시장, 친구관계 등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다.<sup>87)</sup>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즉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주는 선물로 드러내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보살피고 아울러 이 세상과 부단히 관계하고 계시다”<sup>88)</sup>는 사실을 알리는 능동적이고도 실천적인 사역을 감당토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평신도 사역에 대한 논란이 많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은사의 차이일 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누어 감당할 책임이 있다”<sup>89)</sup>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주변을 맴돌거나 목회자의 일을 위한 부수적인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수는 교회와 평신도의 개념이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질성을 지니므로 교회의 성장은 곧 평신도의 성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

84) 김성욱, *op. cit.*, p. 19.

85) 마리아 해리스,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p. 28.

86) 김성욱, *op. cit.*, p. 39.

87) *Ibid.*, p. 39.

88) 마리아 해리스, *op. cit.*, p. 29.

89) 김성욱, *op. cit.*, p. 36.



그리고 평신도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양육되어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성장과 선교사역에 계속 참여해야 할 중심세력이므로 교회는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명수행에 필요한 자원개발을 위해 평신도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0)</sup> 이와 함께 오늘날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사실 영적으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명목상의 교인이 많고, 이교적 요소가 섞인 신학적 훈련이 안된 교인이 많으며, 봉사적 사명을 망각한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은 평신도를 위한 교회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91)</sup>

사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마 5:13-14) 말씀하시므로 세상에서의 신자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 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속해있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은준관은 평신도사역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양면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이는 교회(에클레시아)에서의 평신도사역은 예배, 교육, 교제, 선교라는 네 구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평신도는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성숙성, 그리고 선교를 향한 비전과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흩어지는 교회(디아스포라)에서의 평신도사역은 직업적 소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그리스도의 뜻으로 변혁하여 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2)</sup> 그리

---

90) 고용수, “평신도 교육의 과제와 방향 : 교회의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신앙세계 (서울: 신앙세계사, 1992. 7), 36.

91) *Ibid.*

92) 은준관, “목회 파트너로서의 평신도”, 월간목회 (서울: 월간목회사, 1996. 1), 39-40.

고 평신도사역을 신앙의 양육과 몸을 세우는 일보다 교회봉사에 지나친 강조를 둠으로써 교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sup>93)</sup>

제임스 D. 스마트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교육을 주로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첫째 이유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책임 있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데, 그저 단순히 안전한 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헌금하는 정도의 보통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성인을 위한 교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94)</sup>

이제는 교회도 평신도사역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대립구조에서 탈피하여 서로 협력관계로 구조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한다. 평신도사역을 신학화한 헨드릭 크레이머는 목회자가 교회의 한 유기적 부분이라면 평신도 역시 교회의 '부록'이 아니라 교회의 유기적 부분이라고 말하며, 교회의 유기적 구성으로서의 평신도는 그 사역의 자리가 세계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95)</sup> 그의 말처럼 목회자와 평신도는 사역의 협력자로서 서로의 사역의 장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목회자는 바로 평신도가 더 이상 잠자고 있지 않고, 세상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며 그들을 준비시켜 사명을 감당케 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 혼자서 사역들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평신도들을 배가시키고 격려하여 그들의 은사들을 찾아서 사역하게 해야 한다. 제자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

93) *Ibid.*, p. 40.

94)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146.

95) 은준관, *op. cit.*, p. 39.

선언하였다.<sup>96)</sup>

이처럼 목회자는 평신도 특히 성인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나아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성숙한 평신도 리더들로 성장하도록,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인 평신도들을 교육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 결코 독불장군처럼 홀로 일하시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동역자 삼으셔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 또 모세와 다윗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이 사역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셨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열국의 아비로 자라기까지 인내하며 그를 키우셨듯이, 또 모세를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교육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듯이, 그리고 소년 다윗을 13년간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광야 훈련 끝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택하신 사람들을 친히 교육하신 것처럼 교회도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역량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성인교육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성인교육은 기독교교육적 측면, 인간발달적 측면, 또 교회사역적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성인교육에 등한시할 것이

---

96) 김성욱, *op. cit.*, p. 38.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성화의 도상에 있는 성인 평신도들로 하여금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개인적인 믿음이 성숙하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에 맞는 발달과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 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어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회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성인 평신도들을 양육해야만 한다.

### III. 성인교육의 모델로서의 칼빈의 교회교육

지금까지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교회교육 중에서도 특히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기독교교육적 측면, 인간 발달적 측면, 그리고 교회사역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교회 성인교육의 모델로서 칼빈의 교회교육을 살펴보려고 한다. 칼빈의 교회교육을 성인교육의 모델로 삼은 것은 오늘날의 현 교회의 상황이 종교개혁 당시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고, 또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움직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교회교육은 철저하게 말씀중심이었으며, 또한 성인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회 성인교육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1. 칼빈의 교회교육의 특징

칼빈은 종교 개혁자요, 신학자요, 주경학자요, 설교자일 뿐 아니라, 교육실천가로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 교회교육에 있어서 그의 공헌과 업적은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 교회교육에 좋은 본을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그의 교회교육의 특징들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 오늘날의 교회교육에 던져주는 교육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1.1. 하나님의 교육으로서의 교회교육

칼빈에게 교육은 루터와는 달리 교회를 중심한 교육이었다. 루터는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가정으로 돌리고, 교회론을 '교육'이라는 개념과 거의 연결시

키고 있지 않은 반면,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로서의 개념이 강하다. 그는 교회의 제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며, 그의 첫째 되는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97)</sup> 그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입장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 제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

“하나님께서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sup>98)</sup>

칼빈의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가하는 관점에 기초한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교회교육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루터는 설교와 교육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의 말씀 선포로 보고 있는 반면, 교육은 믿음과는 관련 없는 인간적인 책임으로 보았다.<sup>99)</sup> 하지만 칼빈은 교회의 교육을 루터에서처럼 설교와 구별해서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설교와 교육을 모두 성령의 조명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설교와 교육 모두를 통해 친히 교회를 교육하신다는 것이다. 당연히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행위는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교회교육은 '페다고기아 데이', 곧 하나님의 교육이다.

이처럼 교회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일한 교사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교육적 의미에서 교사로 이해하였으며,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알맞은 교사>”로서 묘사하고 있다.<sup>100)</sup>

---

97) 김득룡, *op. cit.*, p. 51.

98) 존 칼빈, 기독교강요 (下), 김종흡·신복운·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p. 14.

99)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 127.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하였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그의 사랑, 보살핌과 인도함 전체를 곧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으며,<sup>101)</sup> 하나님의 창조사역 또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육은 바로 인간의 상태와 그의 이해능력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하시는 ‘아콤모다치오 데이’, 즉 눈높이 교육의 개념이다. 그는 부패한 인간으로서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약한 상태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여 교육하신다고 보았던 것이다.<sup>102)</sup>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육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칼빈의 교회 이해가 비롯된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중요한 통로요, 기관이요, 장으로 보았다.<sup>103)</sup>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친히 세우셨다는 것이다.<sup>104)</sup>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의 교회의 교육이란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한 신자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하는 교회’로서의 교회이해는 교회론 4장에서 교회를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에게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서,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

100)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p. 157.

101) 양금희, *op. cit.*, p. 112.

102) *Ibid.*, p. 113.

103) *Ibid.*, p. 122.

104) *Ibid.*, p. 121.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sup>105)</sup>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회의 다른 기능, 말씀의 선포나 성례전의 집례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교육적 사명 또한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말씀선포나 성례전의 집행도 교육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인간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하여 자신을 인간의 이해능력에 맞게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sup>106)</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교육이 실현되는 도구로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교육인 것이다. 그의 이런 교회교육에 대한 사상을 통해 우리는 교육에 대한 그의 광의의 해석과 만나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루터에서와 같이 교회교육을 협의의 의미로서의 교육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며, 교회의 기능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칼빈은 교회교육을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주권적인 사역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설교가 성령의 주권적인 행위이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또한 근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며, 교육시킬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회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며 강화하기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세우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친히 택하신 도구였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마땅히 교육이었던 것이다.

---

105) *Ibid.*, p. 124.

106) *Ibid.*, p. 125.



## 1.2. 성인중심의 교회교육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교회교육의 주요대상을 어린이나 청소년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칼빈의 교육에 있어서 성인은 중심적인 교육 대상이었다. 그가 교회란 결코 졸업이 없는 학교로서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라고 주장한 것<sup>107)</sup>에서도 이미 교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즉 구원받은 인간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교육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첫째는 교인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를 놓는 교육이고, 둘째는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이었다.<sup>108)</sup>

이런 첫 번째의 교육 목표를 위해서 칼빈은 「요리문답」을 집필하였고, 그 대상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었다. 그의 「요리문답」은 기독교적인 기초수업을 위한 교재였으며, 이를 통하여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의 교육목표를 그는 성인교육의 영역에서 생각하였다.

그는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교육이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 더 깊은 신앙인식의 세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며, 다른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는 변호의 능력을 길러주고,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을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

---

107) 정준모, 칼빈: 교리교육과 현대 교육목회론 (서울: 은혜출판사, 2003), p. 205.

108) 양금희, *op. cit.*, p. 144.

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09)</sup> 그리고 바로 이를 성인교육의 중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카테키즘(Catechism)의 기능을 청소년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성인들도 배워야 할 신앙의 책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주일 오후 집회 시 성인설교 때 이를 가르쳤으며, 성인 초신자들의 경우 가정방문을 통하여 교리교육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성인들을 위한 교리교육은 주로 3개월 코스로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입교인으로 환영하며 성찬에 참여케 하였다.<sup>110)</sup>

또한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경연구 모임을 실시하였는데, 이 모임은 매주 금요일 아침 9시에 아카데미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이 모임에는 제네바로부터 모든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참석하였으며, 나중에는 아카데미의 교수들도 함께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도 주로 성경본문을 읽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평신도들은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또 질문과 함께 해석에 대한 여러 생각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칼빈이 이런 성경연구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 목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것뿐 아니라, 바로 성인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깊은 지식과 이해 속에서 살도록 그 삶을 돕기 위해서였다.<sup>111)</sup>

그가 이처럼 성인교육에 관심을 쏟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신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데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교회교육에 있어서 신자의 성화의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았던 것이며, 이는 또한 기독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

109) 정일웅, “Calvin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지남 223호, 1990. 3, 74-75.

110) *Ibid.*, p. 75.

111) *Ibid.*

그런 만큼 칼빈은 교육의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단순히 교리교육에만 한계 짓지 않고, 교회에서의 신자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즉 설교와 성례, 치리 등 교회생활 전 영역을 통해 성인들을 교육하고자하였다.

설교는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였다. 그는 설교가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설교에는 반드시 교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많은 예화와 은유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설교하였으며, 또한 선포되는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 주로 말씀을 해석한 강해식 설교를 하였다. 이는 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로서 말씀에 대한 해석, 교리적 의미, 그리고 삶의 적용과 결단을 촉구하는 교훈적인 설교였다.<sup>112)</sup> 그리고 그는 대학교의 강연처럼 연속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한 단락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단락을 다루면서 성경 한 권을 연속적으로 강해하였다. 이렇게 성경 전 권을 연속적으로 설교함으로써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유지되도록 힘썼으며, 성경 교육과 교리교육이 지속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였다. 또한 그의 설교는 질문과 답변의 구조형태를 취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하고자 하였다.<sup>113)</sup>

칼빈은 이처럼 설교를 성인교육의 중요한 매체로 보고, 성인들로 하여금 제네바 교회에서 매일 설교를 포함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으며, 자주 규칙적으로 설교를 들을 것을 강조함으로써 설교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sup>114)</sup>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한편으로는 교리 안에서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훈계되고, 경고되고, 인도되고, 위로가 되고, 자극을 통해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

112) 정준모, *op. cit.*, p. 215.

113) *Ibid.*, pp. 174-75.

114) 양금희, *op. cit.*, p. 151.

었다.<sup>115)</sup> 이와 같이 칼빈의 설교는 교육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는 설교의 교육학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그는 또한 많은 저작활동을 하였다. 특히 「기독교 강요」는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체계를 조직적으로 제시한 책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 그리고 '교회'와 '인간'에 대해 바른 개혁적 해석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sup>116)</sup> 이 책은 원래 성인들에게 프로테스탄트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알려 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이 책에서 성경진리의 전체를 명쾌히 요약하였고, 기독교교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성인들이 기독교교리의 깊은 인식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원했다. 그리고 폭넓고 깊은 신앙의 통찰력을 얻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경연구의 단계로까지 성장하기를 바랐다. 이처럼 그는 성도들이 교리교육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습득할 뿐 아니라, 성경해석에 대해서까지 기본적인 눈을 뜨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다.<sup>117)</sup>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인교육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또한 방대한 양의 성경주석으로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가 한 성경주석은 약 30권에 달하는 것으로서 그의 전체 저술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는 요한1서와 2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 전체와 아가서와 역사서의 일부를 제외한 구약성경 전체를 주석하였는데,<sup>118)</sup> 이는 성인 평신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며 깨닫도록 함으로 교회 성인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칼빈은 이와 함께 또한 성례전의 집행도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의 신앙이 더

---

115) 정준모, *op. cit.*, p. 219.

116) 양금희, *op. cit.*, p. 158.

117) 정일웅,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76.

118) 벤자민 B. 워필드, 칼빈·루터·어거스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2), p. 27.

육 견고해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교육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선포나 성례전의 집행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인간을 더욱 성숙시키신다고 보았다.<sup>119)</sup> 그의 이런 생각은 교육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심지어 그는 제네바 교회에서 일 년에 네 번씩 ‘성찬시험’을 실시하므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성찬을 교육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sup>120)</sup>

성인교육에 중점을 둔 칼빈의 교회교육의 특징은 또한 치리로 나타난다. ‘치리’란 교인들의 삶을 지도하고 동반하고 인도하는 교회의 감독적인 기능<sup>121)</sup>으로서 그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토록 돕기 위한 하나의 경건훈련으로서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치리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며, 또한 바른 성화의 길을 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교육이며, 특히 성인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122)</sup>

이상을 통해 칼빈이 교회교육 중에서도 성인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살펴보았다. 그가 성인교육에 힘썼던 것은 교회교육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성화되어지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카테키즘과 성경연구 모임을 통해 성인 신자들을 교육하였으며, 설교도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강해설교를 하였다. 또한 각종 저작활동과 성경주석을 통해 성인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도록 도왔으며, 성례와 치리 또한 교육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고 실시하였다.

---

119) 양금희, *op. cit.*, p. 125.

120) *Ibid.*, p. 150.

121) *Ibid.*, p. 152.

122) *Ibid.*, p. 154.

### 1.3. 성경중심의 교회교육

이제 칼빈의 교회교육의 세 번째 특징으로 성경중심의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빈의 교회교육의 내용으로서 교리교육을 꼽는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 교리를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저서들을 썼으며, 일생 개혁신앙의 교리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교회교육의 중심내용으로서의 교리교육을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의 교리교육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란 곧 '성경'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카테키즘은 성경을 요약하여 해석한 책으로서 성경의 총합이며, 성경에 나타난 구원 계시의 요약이기 때문이다.<sup>123)</sup> 무엇보다 종교개혁자로서의 칼빈의 신학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이는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중심의 신학이다. 이장식은 칼빈의 신학을 성서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교리와 신학이론이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오직 성서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sup>124)</sup> 종교개혁 당시 중세의 교회가 말씀을 떠난 부패한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이며, 이는 당연히 칼빈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사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으며, 그의 신학은 성경의 신학이요, 성경에서(from Bible)의 신학이다.<sup>125)</sup> 이러한 성경을 중심한 그의 사상은 교회교육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칼빈이 교회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물론 교리교육이다. 하지만 이 교리교육은 또한 철저히 성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는 교리문답

---

123) 정일웅, *교육목회학*, pp. 333-34

124)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p. 152.

125) *Ibid.*, p. 153.

서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 성경에서 그 관련구절을 제시하였으며, 또 성경전반의 메시지에 기초해서 설명함으로써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보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교육, 특히 교리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교육이었으며, 기독교교육의 교과서 또한 성경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된다는 그의 생각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Inst., I.6.1)

“만일 참다운 종교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늘의 교훈을 받아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정당하고 건전한 교리의 가장 작은 조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Inst., I.6.2)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다. 그 안에는 알아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Inst., III.21.3)

이처럼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도 성경이라고 보았다.<sup>126)</sup>

그가 이처럼 교회교육의 중심으로 성경을 강조한 것은 성경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자가 되도록 하는 기초를 놓아주고, 더 나아가 신자가 되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성숙과 발전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며,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성경말씀을 인지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말씀이 계속해서 신자들의 삶으로 연결되어 삶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27)</sup>

---

126)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p. 180.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말씀을 바르게 이해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칼빈의 생각은 성경교육 뿐 아니라, 철저한 성경연구와 방대한 저작활동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그는 제네바에 있는 목회자에게 성경을 바로 주해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매주 한 번씩 성경을 교육시켰으며, 목회자들 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인 장년들에게도 성경과 교리 교육을 강조하였다.<sup>128)</sup>

칼빈의 설교 또한 말씀의 선포 뿐 아니라, 말씀의 교육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교회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설교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교육이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신자들에게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이를 이해시키고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교육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칼빈의 설교에 대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체할 개혁주의 교회를 확립할 필요성 때문에 그의 설교 내용 또한 개혁신앙 강령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칼빈의 설교의 중심은 성경이었으며, 그는 철저하게 성경의 구절구절을 강해하고 성경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였다.<sup>129)</sup>

다시 말해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철저한 강해설교로서 교육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불리(C.H.S. Burleigh)의 지적처럼 “교회의 첫 사명이요, 목회자의 첫 본분은 교인들을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전심을 기울여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자가 되도록 보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sup>130)</sup> 따라서 그는 설교도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과 분석, 난해한 곳에 대한 명쾌한 해명들을 바탕으로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한 강해식 설교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sup>131)</sup> 심지어 그는 성경의

---

127) 양금희, *op. cit.*, p. 132.

128) 김득룡, *op. cit.*, p. 52.

129) T. H. L. 파아커,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p. 17.

130) 김득룡, *op. cit.*, p. 52.

131) 양금희, *op. cit.*, p. 151.



강론인 설교 없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했다.<sup>132)</sup> 뿐만 아니라 그는 설교는 성경에 대한 강해일 뿐 아니라, 성경의 적용으로 보고, 성경을 한자 한자 풀어낸 것처럼, 성경을 회중의 삶과 그 삶의 현장에 한 구절 한 구절 적용시켰다.<sup>133)</sup> 브룬너는 이런 칼빈의 설교를 가리켜 ‘교육설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sup>134)</sup>

칼빈의 성경을 중심한 교회교육개념은 또한 성찬에 대한 이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주의 만찬은 생명이 없는 텅 빈 환상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성만찬 소고>에는 성찬에 대한 이러한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중세의 교회가 성찬을 하나의 의식으로만 전락시켜 버린 데 대해 이를 “원숭이 흉내요 광대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참된 지성을 가지고 이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리가 없는 성찬은 효력 없는 냉랭한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하면서 성례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말씀 없는 성례는 성례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고 하였다.<sup>135)</sup> 이처럼 성례의 본질을 말씀에 부여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고 실현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았던 그는 성만찬에 있어서 반드시 그 언약이 선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만찬에 앞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상징이요, 살아 있는 설교 말씀인 ‘빵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하여 강화하였으며, 매주 예배 때 이를 거행하도록 하였다.<sup>136)</sup>

이상에서 칼빈의 성경중심의 교회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신학이 철저하게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던 만큼, 그는 교회교육 또한 그 근거를 성경에 두었다. 이는 말씀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던 중세 카톨릭 신앙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몸부림이었으며, 그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

132) 김득룡, *op. cit.*, p. 53.

133)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p. 172.

134) 양금희, *op. cit.*, p. 151.

135) 존 칼빈, “사도레토에의 답신 성만찬 소고”, 칼빈 작품선, 박건택 편역 (서울: 바실래, 1989), pp. 119-20.

136) 황성철, *op. cit.*, p. 177.

여 제네바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 칼빈의 교회교육의 의의

지금까지 칼빈의 교회교육의 특징을 하나님의 교육으로서의 교회교육, 성인 중심의 교회교육, 성경중심의 교회교육의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세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칼빈의 교회교육은 가히 교육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는 종교적 암흑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일부 사제계층만이 소유하고 있었다.<sup>137)</sup>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으며, 예배 또한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특권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당연히 대다수의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모두 다 성경지식에 무식하였고, 교회는 전통과 예식만을 강조하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부패의 근본원인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몸부림으로 인해 그들이 이끄는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교육에 주력하였으며, 성경번역으로 인해 일반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칼빈의 교회교육은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초석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교육에도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다. 지금의 교회의

---

137) 김광열, 장로교기본교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4), p. 10.

모습은 사실 중세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성경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설교, 말씀교육보다는 여러 행사나 대사회적인 봉사들로만 교회의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의식, 성인교육이 도외시 되는 교회교육, 말씀의 실천이 없는 신자들의 구별되지 못한 삶, 그리고 권위적이고 계급화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 등은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오늘날의 교회교육의 현장에서도 다시 살아 울려 퍼져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교회교육은 오늘날의 교회교육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칼빈의 교회교육의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그는 교회의 본질을 교육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교육하라는 사명을 위탁받은 기관이다.<sup>138)</sup> 따라서 교육은 설교를 통한 말씀선포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소명 중의 하나이다.

칼빈이 이해하였던 것과 같이 교회는 복음전파를 통한 구원사역과 함께 또한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즉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목적일 뿐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이는 바로 교회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도상에 서 있는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돕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목회에서 교육적 사명을 회복한 교육목회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138) 양금희, *op. cit.*, p. 122.

둘째, 그의 교회교육은 철저히 말씀중심이었다. 그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교육의 교과서로 성경을 꼽았다. 그리고 말씀중심의 교회교육은 강해식 설교와 교리교육, 목회자와 교사의 성경교육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땅히 교회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교회가 행사 위주로 치우칠 때, 교회는 제자가 아닌 일꾼들만을 양성하게 된다. 교회의 소명 중의 하나가 신자의 내적 성숙을 돕는 교육인 만큼, 이를 위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 1주일에 한번 듣는 예배 때의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성경공부를 통한 교회교육을 실시함으로 신자들의 내면의 성숙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

셋째, 칼빈은 교회생활 전체를 교육과 연결시킴으로 교육목회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교리교육 뿐 아니라, 예배와 성찬, 치리까지 모두 교회교육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제공해 준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은 교실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얼마든지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생활 전반을 통해 신자들을 교육해야만 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이 교회생활 전체를 말씀과 연결시키고, 또 이를 통해 신자들을 교육하였듯이 말씀에 기초한 삶의 교육은 말씀을 신자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상 칼빈의 교회교육이 오늘날의 교회에 던져주는 의의를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았다. 그의 교회교육이 시사해 주는 것과 같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인 교육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모두 교육시키는 교육목회로의 목회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 IV. 성인교육의 방안모색

지금까지 교회 성인교육의 모델로서 칼빈의 교회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칼빈의 교회교육이 오늘날 교회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았다. 이제 이에 기초하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성인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말씀 중심의 교육

교회는 복음전파의 소명과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교육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인은 교회와 세상의 교량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 할 대상이다.

칼빈은 교회의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해하였고, 따라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무엇보다 강조하였으며, 성화의 도상에 있는 성인 평신도를 위한 교육에 힘썼다. 무엇보다도 그의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 그는 교리교육 뿐 아니라, 설교와 성례전, 그리고 치리에 이르기까지 교회생활의 전 영역을 말씀과 연결시켰으며, 말씀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제 오늘날 교회의 성인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모델적 역할을 하고 있는 칼빈의 교회교육에 기초하여 성인교육의 중심을 성경교육에 두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성경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성경(말씀)교육의 중요성과 말씀교육을 통한 영적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1.1. 성인교육의 중심으로서의 말씀교육

근래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인교육이 너무 성경공부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과정으로 여기며, 삶의 문제와 좀 더 근접한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다. 물론 성도들의 은사를 활용하여 여러 배움의 장을 마련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또 전도의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은 격려할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성인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외부 강사의 초청을 통해 한 달에 한, 두 번씩 세미나나 강연 등을 개최함으로써 그것으로 성인교육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것으로 성인 평신도의 내적 성숙을 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면의 변화와 함께 참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평신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인교육의 가장 주된 교재는 마땅히 성경이 되어야만 한다. 신앙의 기초로서 성경말씀을 먼저 반드시 교육한 이후, 이와 함께 또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올바른 성인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방법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먼저 교육의 목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sup>139)</sup> 즉 칼빈의 교회교육의 목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라는 원리정립이 선행될 때, 과연 성인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교회교육의 목적 하에 마땅히 교회는 성인교육을 위해 성경말씀을 먼저 가르쳐야만 한다.

제임스 D. 스마트는 "성경을 덮어 놓으면 기독교인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인간

---

139) 정정숙, "성경적 상담과 교육목회: 교사와 목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224호, (서울: 신학지남사, 1990. 6), 175.

에게 주어지는 생명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국을 공개하시게 하려면 교육 과정의 중심은 성경이어야 한다.”<sup>140)</sup>고 말함으로써 성인교육의 중심으로서 성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독교교육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sup>141)</sup>

또한 성경말씀은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규범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 칼빈은 기독교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과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지도받고 고취되는 생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신자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였다.<sup>142)</sup>

D. L. 무디 또한 말씀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는데, 그는 건강하고 쓸모 있는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말씀을 공부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과 실천이 모두 중요한데, 말씀이 없으면 실천은 오래 가지 못하고, 죄의 오류에 빠지게 되며, 결국 실천은 유익보다 해를 끼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말씀을 먼저 철저히 공부한 다음에 실천에 힘써야 하며, 그러할 때 열매 맺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143)</sup>

---

140)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150.

141) 아이리스 V. 켈리, *성경과 기독교교육*,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p. 23.

142) 로날드 S.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pp. 270-71.

142) D. L. 무디, *성경공부의 기쁨과 유익 승리하는 기도 승리하는 생활*, 이길상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p. 14.

이상에서와 같이 성인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성인교육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말씀교육이 없이 예배, 봉사, 성도의 교제에만 힘쓰는 것은 무의미하며, 균형 있는 건강한 신자들로 성장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올바른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영적 양식이다. 따라서 신자들을 온전한 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말씀교육에 힘써야만 한다. 이제 다음 항에서는 성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 유익들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 1.2. 말씀교육을 통한 영적 유익들

### 1.2.1. 말씀교육과 가치관

말씀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유익들 중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말씀이 신자들로 하여금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신자의 영적 가치관은 그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곧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신앙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sup>144)</sup> 하나님을 축복의 원천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신앙은 구복적인 성격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이해하게 되면 마땅히 그 신앙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또 성경에 기초한 바른 영적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교육을 통해 도와주어야만 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바른

---

144) 김광열, *op.cit.*, p. 13.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올바른 신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놓은 책인 만큼,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관을 정립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성경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구속사역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의 성품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성경에는 신관을 비롯하여,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 등 신앙의 기초를 놓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가치관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나 유대민족의 기원을 다룬 책이 아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문제, 즉 세상과 우주의 기원, 인간과 만물의 기원, 그리고 결혼과 민족과 언어의 기원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성경적 인간관, 결혼관, 여성관, 역사관 등 영적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죄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무엇인지, 그 섭리와 경륜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중요한 원리 또한 이미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말씀은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도와준다. 가치관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 주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신앙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의 유형이 결정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가치관 부재의 시대, 탈 도덕 시대에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살아야만 하는 성인 평신도들의 경우,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성경은 또한 인간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성경에 기초한 바른 인간관을 소유하게 될 때,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제임스 D. 스마트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자기 마음속에 깊이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45)</sup> 이처럼 성경은 자기 자신을, 또 타인을 바라보는 성경적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자아형상을 갖고 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자아형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하지 못할 때, 타인에 대한 봉사나 사랑, 헌신 또한 왜곡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안토니 A. 후크마는 기독교 신앙이 적절하게 이해되어지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때, 그 신앙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형상을 가져 온다<sup>146)</sup>고 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을 가르침으로써 성경적 자아형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아(고후 5:17),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아(벧전 2:9)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도울 때, 균형 잡힌 자아형상을 소유하게 되며, 타인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갖게 된다. 부정적인 자아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

145) 제임스 D. 스마트, *op.cit.*, p. 164.

146) 안토니 A. 후크마, *성경이 가르치는 자아형상*, 정정숙 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p. 28.

수밖에 없다.<sup>147)</sup>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바른 인간관을 소유하게 될 때,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용납과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며,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교육을 통해 성인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관과 인간관을 형성하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분명한 영적 분별력과 비판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1.2.2. 말씀교육과 성화

말씀교육을 통한 영적 유익들 중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성화이다. 교회교육의 초점은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있다. 다시 말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는 데에 있다. 이는 교회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신자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다. 영적 성장은 또한 신자의 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성화'란 죄로 인해 부패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령의 역사<sup>148)</sup>로서 바로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신자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의 성화에 대해 관심 갖기보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적인 관계나 직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는 분명 올바른 교회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교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의 거센 물결 앞에서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만한 내면적인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

147) *Ibid.*, p. 95.

148) 김광열, *op. cit.*, p. 215.

실이다. 이런 삶과 신앙의 괴리현상으로 인해 교회는 지탄받기 일쑤고, 이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회사업에 힘쓰는 등, 지역사회와의 인간적인 화합을 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교회의 구조와 제도적인 개선으로는 세속사회에 교회가 참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육을 통해 신자들이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야만 한다.

칼빈은 신자들의 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바로 이를 위해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 주력하였다. 물론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신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다(요 17:17).<sup>149)</sup>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신자의 마음과 심령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힘이 있다(히 4:12). 또한 말씀은 신자의 삶을 교훈하며,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에 있어 유익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딤후 3:16), 신자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준다(벧전 1:22). 그러므로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점진적인 성화에 있어서 말씀은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sup>150)</sup>

또 성경에는 특별히 뛰어난 기성의 성인이라는 것은 없다. 그 중심인물들은 흠 없는 모범 인물이 아니라 도리어 선악의 중간에서 변민하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다. 성경은 영적으로 특별한 성인의 행적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 인간성의 높이와 깊이를 알려 주고, 어떻게 하면 암흑과 죄악의 세력

---

149) 한춘기, 기독교교육신학(1), p. 298.

150) 김광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4), p. 386.

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의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다.<sup>151)</sup> 이처럼 성경은 성화의 도상에 있는 신자들  
이 때로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영적 성장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격려해 준다.

성경에는 또한 신자들의 삶의 윤리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지침들이 기록되  
어 있다. 페리 G. 다운즈는 영적 성장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시작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성경을 크게 불신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경  
을 삶과 믿음의 유일한 척도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2)</sup> 이처럼 교회  
는 성경말씀이 신자들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성경이 단순히  
이해되어야 할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리로 가르쳐  
야 하며, 사람들의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과 연결하여 가르침  
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도록 도와야만 한다.<sup>153)</sup> 오늘날과  
같은 윤리 부재의 시대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윤리를 실천  
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토록 도와야 한다.

이처럼 성경말씀은 신자의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며,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 성인교육은 말씀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신자의 영적 성장, 즉 성화에 두어야 한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육해서는 안 되고, 먼저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 및 그의 복  
음과의 접촉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갈 때,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51)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184.

152) 페리 G. 다운즈, p. 334.

153) *Ibid.*

### 1.2.3. 말씀교육과 상담

말씀교육은 또한 신자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상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육체와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증후군들은 현대인의 대표적 병리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을 위한 여러 상담기관들이 늘고 있으며, 멘토링의 역할 또한 부상되고 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정과 직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과 함께 신앙의 문제들을 위한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성인 신자의 경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내면과 신앙을 도와줄 상담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은 더욱 상담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과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 교회는 이들을 이해하고 그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을 실시해야만 한다.

기독교 상담의 일차적인 원리는 바로 그 상담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상담과 성경교육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상담의 목표는 피상담자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고전 10:31)하는데 있다.<sup>154)</sup> 이는 기독교교육의 목적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참된 말씀의 교육은 상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내면을 건드려주는 성경공부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이는 상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해결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삶의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은 내면

---

154) 정정숙, “성경적 상담과 교육목회: 교사와 목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180.

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자아형상을 갖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행위의 규범을 제시해 준다. 무엇보다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과 같이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들을 치유하며, 외양간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놀게 해준다(말 4:2).

물론 아담스(J. E. Adams)의 말과 같이 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다. 하지만 상담이 성령의 사역임을 인정할 때, 당연히 상담은 성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상담사역은 바로 말씀의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원리적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담도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담의 근거는 항상 성경이어야만 하며, 성경을 떠난 상담은 성령을 떠난 상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55)</sup>

이상과 같이 올바른 교회의 말씀교육은 상담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기독교 상담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는 성인 말씀교육 속에서 상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말씀이 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 1.2.4. 말씀교육과 기도(경건훈련)

말씀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유익으로 경건훈련, 특히 기도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신자의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이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백성들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다. 칼빈은 신자의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표현으로 보았다.<sup>156)</su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를 통하여 신자를 정결케 해주

---

155)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p. 62.

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자는 마땅히 경건을 소명의 목표요,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다.<sup>157)</sup>

이처럼 경건은 성화의 도상에 있는 신자들의 삶과 밀접한 것이며, 성화의 과정 속에 맺혀지는 열매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의 경건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로 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건훈련의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도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자들이,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기도를 문제해결의 열쇠로 생각하기도 하고, 신비의 체험으로 여기기도 하며, 성령을 받는 수단으로서 행하기도 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말씀교육을 통해 행해야만 한다.

기도는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만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듯,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40일이고, 100일이고 작정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생활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모든 신자들의 기도의 표준인 것처럼 40일 금식기도를 목표삼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기도생활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신자의 영성의 표식이라도 되듯, 방언기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고전 14:19).

기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다.

---

156) 존 칼빈,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 25.

157) *Ibid.*, p. 78.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자 하고, 또 이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기도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겐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예를 보여주셨다(눅 22:39-44).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결단은 바로 이 기도에서 그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때만이 기도가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경건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바로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경건이라는 사실은 기도가 말씀에 기초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묵상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에 기초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덧입게 된다. 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영적 싸움이기도 하다. 마리아 해리스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있어서의 묵상기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그녀는 이러한 묵상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조용히 위치시키고, 말씀과 함께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며, 또 자신은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158)</sup>

칼빈 또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 말씀을 영혼 속에 새기고, 깊이 자리 잡게

---

158) 마리아 해리스, *op. cit.*, pp. 116-17.

하며, 심령 깊은 곳에 저장할 때, 심령 속에서 성화하는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였다.<sup>159)</sup> 이처럼 말씀에 기초한 묵상기도는 신자로 하여금 바른 경건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교육을 통해 신자들에게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신자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가 내면의 참된 경건을 이루는 훈련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또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도록 도와야만 한다.

### 1.2.5. 말씀교육과 봉사

말씀교육을 통한 영적 유익으로 또한 봉사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봉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다. 하지만 바른 봉사의 행위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교회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레티 M. 러셀은 봉사의 생활도 말씀에 대한 증언과 함께 기독교교육의 목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 봉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해방되는 자유를 얻음으로써 타인에게 봉사하는 참 기쁨을 체득하지 않는 한, 그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봉사의 습성이 한 번 몸에 배어 자라남에 따라 섬기는 일의 기쁨도 한층 증대하고 마침내는 봉사가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160)</sup>

이 말은 내면에 구속의 은혜로 인한 자유함과 기쁨이 살아있을 때, 참된 봉사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자유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는 일”이다. 즉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곧 신자의 봉사라는 것이다.

---

159) 로날드 S. 윌레스, *op. cit.*, p. 275.

160) 레티 M. 러셀,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pp. 189-91.

이러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와의 싸움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다. 그때 봉사를 통해 영혼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봉사의 개념은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봉사로 오인하는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그릇된 봉사관을 교정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여성 신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나와 온 몸을 바쳐 봉사하는 것을 신자의 올바른 헌신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봉사의 중심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하며, 또한 참된 봉사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봉사이다. 나아가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복음전파에 대한 봉사이며, 헌신이다.

따라서 바른 봉사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교육이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열심 있는 행동도 중요하고, 헌신적인 삶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열심과 헌신의 성경적인 기초를 간과할 때,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sup>161)</sup> 즉 헌신 후에 사람들의 인정 문제나 교만으로 인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며, 자기 의가 쌓여 봉사를 타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교육을 통해 참된 봉사, 참된 헌신을 신자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돕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내면에 살아있도록 도움으로써 은혜에 기초한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끔 인도해야만 한다.

그러할 때 또한 봉사는 사회적 봉사의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신자들이 교회에만 헌신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다. 이는 신자들이 사회적 봉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통

---

161) 김광열, 장로교 기본교리, p. 13.

해, 또 복음전파와 함께 실제적 돌봄으로 영육 간에 인생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영적 봉사와 함께 사회적 봉사에 대한 책임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자신에게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교육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봉사의 책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적인 부분에서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서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양육해야하는 것이다.

#### 1.2.6. 말씀교육과 제자양육

말씀교육을 통한 영적 유익으로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양육의 부분이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마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해야만 하며, 이는 또한 교회 성인교육의 중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에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각종 제자훈련 세미나가 개최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들이 교회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도전은 한 동안 교회부흥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교회성장의 한 방편으로서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지는 것이다. 제임스 D. 스마트는 비기독교 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 성경을 통해 훈련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 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의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신앙과 생활, 또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것이 된 신앙과 생활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는 성경에 나타  
난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그의 빛에 비추어 자기의 모든 생활을 이해하고,  
또한 말과 행실만 아니라 자기 전 존재가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산 증거가  
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sup>162)</sup>

그의 말은 바른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다. 말과 행동에서, 그리  
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이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작은 예수'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삶 자체로 복음을 증거 하는 복음의 증인인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보내다(*apostello, pempo*)'라는 동사가 '제자'라는 말과 같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제자와 증거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누가는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  
르고 있는데, '사도(*apostolos*)'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sup>163)</sup>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대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한 분리현상을 보일 것  
이 아니라, 교회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분별력 있는 사  
고와 행동을 하며, 나아가 이를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제자의 모습  
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  
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  
스도에게 복종케"(고후 10:5)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것이다.<sup>164)</sup>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자로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야만 한

---

162)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191.

163) 옥한흠, *op. cit.*, p. 153.

164) 김광열, 장로교 기본교리, p. 31.

다. 말씀교육과 제자양육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예수님도 말씀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요 8:31). 그러므로 교회는 성인 말씀교육을 통하여 성인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토록 양육하고 교육해야만 한다. 실제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궁극적인 교회 성인교육의 목표인 동시에, 교육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 제임스 D. 스마트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배우는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제자로 만들게 하시는 데 있다고 하였다. 즉 복음을 이해하고 불신의 사회에서 말과 행실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말씀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sup>165)</sup>

따라서 교회는 성인 평신도를 오직 교회사역을 위해서만 묶어두어서는 안 되고, 말씀교육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만한 역량을 길러줘야만 한다.

이상으로 말씀교육을 통해 어떤 영적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말씀교육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영적 유익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자라나도록 돕는 영적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준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교육을 통해 신자들이 은혜의 살이 찌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것이다.

---

165)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p. 134-35.

## 2. 말씀교육의 방법

지금까지 성인교육의 중심으로서 말씀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말씀교육이 주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유익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인 말씀교육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성인 말씀교육을 실시할 때에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 2.1. 말씀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점들

성인 말씀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말씀교육은 지식전달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성경교육을 진부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그 동안의 성경공부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인지적 차원에서만 그쳤기 때문인 이유가 크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외우거나 그것에 대한 명상에 잠겨보는 일련의 이론 서적이 아니다. 성경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책이며,<sup>166)</sup> 또한 신앙성숙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성경에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말씀교육은 이제 더 이상 지식전달 위주의 공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성경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삶은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은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sup>167)</sup>

제임스 D. 스마트도 성경을 올바르게 또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성경을 생

---

166)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286.

167) *Ibid.*, p. 287.

활 전체와 관련시켜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sup>168)</sup> 찰스 G. 샤플 또한 배운 말씀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sup>169)</sup>

무엇보다 성인 신자들은 그 특성상 배운 교육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성인 말씀교육은 이러한 성인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시할 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해보도록 함으로써 기도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기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아 해리스가 말한 “우리는 기도하도록(to) 교육받기도 하지만, 아울러 기도에 의해(by) 교육을 받기도 한다”<sup>170)</sup>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인 말씀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이 성인 신자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주입식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인은 어린이들과 달리 학습에 있어서 피동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한 자기 주도식 성경교육이 필요하다. 찰스 G. 샤플은 성인들은 방관자로서 보다는 참가자로서 임할 때 훨씬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운다고 하였다.<sup>171)</sup>

또 성인들은 단순히 배운 내용의 암기보다는 문제 중심의 공부를 기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조건 성경을 읽고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연표나 왕들의 이름 등을 암송하고 성경구절들을 암송하는 식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하고, 성경의 스토리 중심, 문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을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그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며, 삶 속에

---

168)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151.

169) 찰스 G. 샤플, *op.cit.*, p. 262.

170) 마리아 해리스, *op. cit.*, p. 114.

171) 찰스 G. 샤플, *op. cit.*, p. 262.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된다. 또한 자립적인 성경선생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사도행전 8장에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집사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 하게 된다. 여기에서 평신도였던 빌립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켜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성경공부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회의 성인 평신도들도 성경말씀의 핵심을 풀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를 증거 할 수 있는 자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소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훈련은 자기 주도식 교육방법으로 가능하다.

셋째, 전도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성인 성경교육을 전도를 위한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도를 위한 교육을 할 때, 성경공부가 단순히 프로그램 위주로 실시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교회에서 단기간의 코스별 성경공부를 실시하여 그 코스가 끝나면 수료식을 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 팀을 구성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하지만 이는 본래의 교회교육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모습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내면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공부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들과 함께 싸워주는 영적 씨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 성경교육은 소명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2. 새로운 방안 모색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인 성경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인 성경교육은 1:1 또는 소그룹 성경공부여야 한다. 이는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방통행식의 강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서로간의 진실된 교제를 이룰 수 없다.

옥한흠은 소그룹을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이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sup>172)</sup>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그룹의 장점을 몇 가지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첫째, 학습자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점, 둘째, 자기 개방이 다른 형태의 모임에서보다 쉽게 나타난다는 점, 셋째, 인격 상호간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서로간의 모방효과, 다섯째, 그룹 애착심의 형성, 여섯째, 거리낌 없이 자기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sup>173)</sup>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교육에서부터 소그룹 형태의 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소그룹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교육은 지도자 양성의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대교회도 그 형태가 소그룹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소그룹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행 2:42-46).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20-30개의 가정 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74)</sup> 이처럼

---

172) 옥한흠, p. 239.

173) *Ibid.*, pp. 242-48

174) *Ibid.*, p. 239.

소그룹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성경적인 교육방법인 것이다.

페리 G. 다운즈는 큰 규모의 집단보다는 작은 규모의 집단, 개인적인 집단으로 교육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리차드 백스터의 예를 들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중 하나로서 유명한 고전인 「참된 목자(The Reformed Pastor)」의 저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교인들이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의 기본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소그룹을 통해 가르쳤을 때 비로소 교인들이 실제로 이해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들을 보다 깊은 학습 차원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sup>175)</sup>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1:1 교육방법이지만, 개 교회에서 이를 실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명 내지 7명의 소그룹이 적당하다.

또 소그룹을 구성할 때에는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폭넓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들의 환경을 염두 하여 직종별, 성별, 신앙의 단계에 따라, 또 취미별, 은사별 등등 여러 형태의 소그룹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둘째, 귀납적 방법의 성경공부여야 한다. 귀납적 방법은 연역적 방법에 비해 뛰어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인도자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학습자들은 듣는 관계가 아니라 참가자 전원이 교사이면서 동시에 학생이 되어 함께 성경공부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둘째는 증명의 논리를 따르는 연역적 방법과는 달리 귀납적 방법은 발견의 논리를 따른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화가 학습의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일방적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귀납적 방법이 연역적 방법에 비해 그

---

175) 페리 G. 다운즈, *op. cit.*, p. 228.

내용이 조직적이고 학문적이지 못한 단점도 있지만, 오히려 지식 전달보다 인격의 변화에 역점을 둘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는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말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sup>176)</sup>

하워드 헨드릭스는 귀납적 방법은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학습자가 스스로 성경 본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sup>177)</sup> 그는 또한 귀납적 성경공부 방법으로 3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관찰, 해석, 적용이 그것이다. 관찰은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관찰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 시간을 통해 말씀에 대한 관찰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해석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성경공부는 바로 이 해석에서 시작해서 해석으로 끝나는데, 귀납적 방법은 다음 단계인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적용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단계로서 이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sup>178)</sup>

정정숙 또한 성경을 공부할 때, 지도자들은 성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토우(Rodney G. Toews)의 책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할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둘째, 그 의미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

---

176) *Ibid.*, pp. 252-53.

177) 하워드 헨드릭스 & 윌리엄 헨드릭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정현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pp. 44-46.

178) *Ibid.*, p. 56.

할 수 있는가? 셋째, 그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그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학습자들이 깨달은 진리를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지식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sup>17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납적 방법은 성인 성경교육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법이다. 또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방법이며, 칼빈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연구 모임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귀납적 성경공부를 통해 성인 학습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경공부에 참여하도록 자극하며, 자립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 대화로 이루어지는 성경공부여야 한다. 이는 귀납적 성경공부를 특징 지워주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야기대화식 성경공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대희는 이런 형태의 성경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의 귀납적 방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이야기 형태로 성경을 연구하고 발견된 의미를 인격적인 상호 대화를 통해 내면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80)</sup> 그는 또 성경은 그 기록에서부터 이미 이야기적인 요소와 대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대화식 성경공부는 새로운 성경학습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근본적인 성경공부로의 회귀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공부방법이라고 하였다.<sup>181)</sup>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많이 나온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

179)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p. 287.

180) 이대희,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이야기 대화식 성경연구 (서울: 엔크리스트, 2003), p. 20.

181) *Ibid.*, p. 19.

예수님과 인간의 대화를 통한 참 교육의 예가 잘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나,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레티 M. 러셀은 누가복음 24장 13-35절까지의 내용, 즉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눈 대화를 기독교교육의 좋은 예로 들고 있다. 그녀는 이런 대화야말로 기독교교육의 구조 혹은 형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의 대화에서처럼 성경공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점차로 '눈이 띄어져 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며,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또한 헌신으로까지 이끌어지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였다.<sup>182)</sup>

계속해서 그녀는 기독교교육이란 하나님과 세계와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또 이 대화 속으로의 적극적인 인간의 참여라고 정의하면서, 성경의 연구 또한 이러한 대화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할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또한 인간의 실생활에서 살아 역사하여 그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sup>183)</sup>

이러한 이야기, 대화식 성경공부에서 인도자의 질문은 대화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열쇠가 된다. 인도자는 대화가 성경 본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본문 말씀의 주제를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또한 학습자들을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다.

아이리스 V. 켈리는 토론은 성경공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토론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의 개방성을 요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도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폭넓은 참여를 격려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에 대한 좀

---

182) 레티 M. 러셀, *op. cit.*, pp. 99-102.

183) *Ibid.*, pp. 103-11.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질문을 이끌어 내며, 보다 깊은 이해로 인도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84)</sup>

이상에서와 같이 좋은 성경공부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거나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며 본문 안에서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sup>185)</sup> 칼빈도 역시 그의 교리교육에 있어서 자유로운 대화의 방법으로 질문을 유도하면서 주제에 접근하는 대화식 학습방법을 행하였다. 따라서 성인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는 대화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또 인도자는 성인들의 역동적인 힘을 이용하여 대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성경교육을 인도하기 위해 먼저 스스로 말씀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한다.

넷째, 지식전달로 그쳐선 안 되고, 삶과 연결되는 성경공부여야 한다. 바른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인지적인 차원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 영적인 면까지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말씀을 학습자가 이해하는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문제로 접근하는 성경공부가 필요하다.

사실 성경은 그 자체가 인간을 중심으로 서술된 구원서이며, 인간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사람의 심령을 찢어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히 4:12), 누구든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말씀이 그 내면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이 과연 인간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를 의문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말씀이 인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만 한다.

하워드 헨드릭스는 말씀을 적용하는 4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

184) 아이리스 V. 켈리, *op. cit.*, p. 165.

185) 이대희, *op. cit.*, p. 23.

다.<sup>186)</sup> 1단계는 ‘아는’ 단계로서 먼저 성경 본문의 바른 해석을 알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아는 것이다. 2단계는 ‘경험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타인에 대해서도 또 영적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준다. 또 각 사람의 죄를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신자가 따라야 할 본을 제시해 준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단계를 통해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3단계는 ‘묵상’의 단계이다. 묵상은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도우며, 재조정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4단계는 ‘실천’의 단계이다. 성경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의 꾸준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처럼 말씀은 실제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때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뿐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 성경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며, 그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계시내용이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성경공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김광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 차원에서의 지식(Knowledge about God)과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Knowledge of God)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

---

186) 하워드 헨드릭스 & 윌리엄 헨드릭스, *op. cit.*, pp. 379-91.



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고 하였다. 즉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내용들을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확신케 하시며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산지식이 되도록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187)</sup>

루이스 J. 세릴도 또한 인간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즉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심층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으로서 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인격적 관계성을 맺게 되며, 이는 곧 계시의 핵심이요, 동시에 기독교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sup>188)</sup>

이와 같이 성경공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말씀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으며, 신앙과 삶의 변개할 수 없는 지침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공부여야 한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으며 저자도 모두 다르지만, 동시에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통일된 완전체이다.<sup>189)</sup> 각 권의 주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통일된 주제를 갖고

---

187) 김광열, 장로교 기본교리, p. 21.

188) 루이스 J. 세릴, 만남의 기독교교육, 김재은·장기옥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 115.

192) 하워드 헨드릭스 & 윌리엄 헨드릭스, *op. cit.*, p. 294.

있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은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새 역사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구약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알 수 있다.<sup>190)</sup> 단편적으로만 성경의 각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 성경 전체의 연결성을 놓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단편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이해하고, 부분을 전체와 연결해서 공부하게 될 때, 성경 전체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을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서 공부하게 될 때, 잘못된 성경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려고 든다면 각종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자칫하면 심각한 신학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본문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통일된 주제 속에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기독교교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말씀과 교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리 자체가 성경에 근거해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교리만 따로 떼어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한 교리를 진부하고 딱딱한 신학내용으로 생각하고, 성경말씀만 가르칠 때, 신자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다.

칼빈은 신자들의 교리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계시인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교리교육이 신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며, 삶을 올바르게 인도한다고 믿고, 이를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다.

---

190) 제임스 D. 스마트, *op. cit.*, p. 170.

사실 성경은 기독교 교리의 근거로서 성인 교회교육 시, 성경공부 속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함께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론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관해 가르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함께 삼위일체 교리(창 1:26)를 교육할 수 있다.

여덟째, 소감을 나누는(sharing) 것이 중요하다. '소감'이란 성경공부를 한 후, 배우고 느낀 점을 글로써 적는 일이다. 이는 배운 말씀을 내면화 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그룹 성경공부 때에 말씀을 맺으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느낀 점을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말씀을 내면화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말씀을 내면화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소감 쓰기를 통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소감은 아침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Q.T.(Quiet Time)와도 흡사하다. 다만 소감은 이미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감을 쓸 때는 배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본문 말씀의 내용과 해석을 노트에 적어보면서 정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공부를 할 때, 난감해 하는 부분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감을 통해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배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이를 마음에 되새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감을 쓸 때는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살면서 늘 사건(fact)에 부딪히게 된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말씀으로 조명해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이 필요하며, 소감은 바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함께 소감을 통해 말씀으로 사건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를 발견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감을 쓴 후, 성경공부 그룹에서 이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해 보다 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 수 있으며, 상대방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 갖고 도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신자의 참된 영적 교제이다. 올바른 교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을 떠난 교제는 아무리 신자들끼리의 만남이라 해도 인간적인 관계로 흘러 교회 내에 여러 분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때론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소감 sharing을 통해 진실된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제임스 D. 스마트는 “참 교제는 신앙에서 오는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려면 인간 앞에서도 솔직하여야 하며, 인간 사이에 있는 교제의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커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까지 가로막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사회의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교회에도 침투해 오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 앞에서도 닫을 수 없다고 하였다.<sup>191)</sup>

이와 같이 소감은 말씀을 내면화 하고, 삶에 적용시켜 줄 뿐 아니라, 소감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진실 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참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아홉째, 합심기도로 말씀공부를 끝맺어야 한다. 성경공부는 물론 인도자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

191) *Ibid.*, pp. 155-56.

성경공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자세이다.

이와 함께 같은 그룹의 사람들끼리 합심기도로 끝맺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합심기도란 말 그대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이며(행 2:42),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마 18:19).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합심기도를 여럿이서 모여서 각자가 동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심기도는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기도를 말한다. 성인 성경공부에서는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심기도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따라서 인도자는 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도제목을 제시하도록 하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룹의 다른 사람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소리 내어 기도하도록 함으로 기도의 동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열째, 절기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성인 성경공부는 성경의 한 권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절기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기교육을 실시할 때, 신자들이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따라서 절기를 단순히 교회행사로만 치루는 실수를 범치 않게 된다.

레티 M. 러셀은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힘 있게 일해 오시는 일체의 활동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이라고 하였다.<sup>192)</sup> 따라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의 축하잔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전 세계에 대해서 열려진 새로운 인간성을 축하하는 잔치라고 말하였다.<sup>193)</sup>

---

192) 레티 M. 러셀, *op. cit.*, p. 176.

그녀의 지적처럼 성찬을 비롯해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교회의 각종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잔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찬의 경우, 이미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 번 만끽할 수 있는 자리이다. 또 부활절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권세가 단번에 파해진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므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야 하는 축제이다. 성탄절 또한 어린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방불케 하는 공연이나 이벤트로 장식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고, 그 한없는 겸손과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는 잔치가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성인 성경교육을 통해 절기 하나하나에 담긴 참 뜻을 교육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성인 성경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외에도 바른 성경공부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다. 어떻게 성경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인교육이 교회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성경교육의 필요성이다.

사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의 편견처럼 딱딱하고 진부한 내용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입의 꿀보다 더 달다(시 119:103)는 다윗의 고백처럼 성경 말씀은 올바르게 공부하면 매우 재미있는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의 맛을 체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맛을 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맛을 보여주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의 내적 성숙을 위해 한국 개신교 역사 초기에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듯이 다시 성경교육의 불을 당겨야한다.

---

193) *Ibid.*, p. 181.

## V. 결 론

### 1.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성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또한 성인교육의 모델로서 칼빈의 교회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성인 교육에 있어서의 성경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들의 내적 성숙을 도외시한 채,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던 한국 교회는 교회의 침체라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이제 신자들의 내적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목회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성인 신자들을 위한 바른 교육을 실시함으로 신자들의 내적 성숙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면 성인 신자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과 삶이 변화되며, 나아가 세상에 대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 평신도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교회 성인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둘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적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성경적인, 또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다. 성경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의 명령 즉 쉼마 텍스트(text)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한 교육, 서기관들과 회당 중심의 교육,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 교회의 교육을 통해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도 구약의 회당교육과 초대 교회, 중세와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 근세와 주일학교 운동까지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교회의 영적 상태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는 특별히 성인교육에 힘써야 하며, 성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요한 교육대상이다. 이는 신자의 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또 신앙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마땅한 일이다. 또 성인은 아직도 발달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과업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교회는 성인을 교육해야 한다. 나아가 교회 사역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성인 신자가 그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인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칼빈의 교회교육은 교회의 성인교육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된다. 칼빈은 교회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별히 성화의 도상에 있는 신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점에서 성인교육에 힘썼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경교육과 교육설교, 또 많은 저작활동을 통해 성인들을 교육하였으며, 성례전이나 치리 등 교회생활 전반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교육목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성인 교회교육에서 특별히 성경교육을 강조한 칼빈의 교육에 기초해 볼 때, 성인교육의 중심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성경말씀은 신자들의 영적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고, 성화의 길을 견도록 도와주며, 내면을 치유하는 상담의 효과도 있고,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줌으로써 경건훈련을 시켜준다. 또한 참된 봉사에 이르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신자들을 제자로까지 자라나도록 돕는다.

따라서 교회는 성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성경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성경교육을 실시할 때는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귀납적, 대화식 방법을 사용하며, 신자의 삶에 적용되는 성경공부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성경을 전



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르쳐야 하며, 교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적용을 위해 소감을 쓰고 이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합심기도로 공부를 마치고, 성경교육과 함께 절기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서론에서 제시했던 논제, 즉 교회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성인교육에 힘써야 하고, 성인교육의 중심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헌연구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신자들의 내적 성숙을 돕고, 영적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성인 신자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존재목적을 새롭게 하고, 그 사명을 재검토할 때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전 1: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인 신자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것(엡 4:13)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사들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엡 4:12-13).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동일하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교육의 중심을 성경에다 두어야 한다. 성경말씀만이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칼빈은 중세의 종교적 암흑기에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과 함께 누구보다도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교회교육에 대한 그의 탁월한 이해와 노력은 이 시대에서까지도 큰 의미로 작용한다. 특히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의 교회교육은 진리가 상대화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교회교육의 좋은 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교회의 중심 세력인 성인 신자들을 성경말씀으로 교육함으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온전한 자로 세워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끝으로 말씀교육을 인도해야 할 목회자와 교사는 어떤 자세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인도자는 목자가 되어야만 한다. 즉 성경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사람의 내면을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게 되면, 말씀 앞에서 각 사람의 죄 문제와 절실한 기도제목들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인도자는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믿음의 결단과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죄와 싸워주는 영적 씨름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감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성경지식에만 능통한 자가 되려하지 말고,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각 사람의 내면을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 성장해야 한다.

둘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겼다(삼상 12:23). 이와 같은 자세로 인도자는 각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공부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 사람의 심령에 온전히 심으시고, 영적인 열매로 맺혀지도록 도우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도가 또한 한 사람의 내면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셋째, 말씀공부의 인도자는 말씀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목회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누구보다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헌신된 자세로 말씀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주어진 교재만 의지해서 말씀공부를 인도해서는 안 되고, 먼저 개인적으로 충분한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연구하며, 마찬가지로 성

령을 의지해서 말씀공부를 섬겨야 한다.

넷째, 교회의 삶 자체가 교육이 되도록 말씀공부와 연관시켜야 한다. 말씀공부와 교회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교회생활의 모든 부분은 사실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 친교 등 교회생활 전반을 말씀공부와 연결시켜 말씀 속에서 이를 바로 이해하고, 행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 2. 제언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성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놓칠 때,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중세 교회의 모습 앞에 종교개혁자들이 분노하며 성경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피와 땀을 쏟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원리와 가치이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목회는 교회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소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선한 목자들에게 교회의 본질로서 교육적 사명을 일깨우며 성인을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원칙들을 세우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개 교회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여기에서 제시된 원리를 붙들고 성인들과 씨름해야 하는 것은 현장의 목회자들이다. 이제는 다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목회 현장 속에서 다양한 방법의 성인 교육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몫 또한 현장 목회자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선한 목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과 씨름하므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날을 소망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국내서적

- 김광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장로교 기본교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4.
- 김득룡, 기독교교육원론,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5.
- 이대회,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이야기 대화식 성경연구, 서울: 엔크리스트, 2003.
- 정일웅, 교육목회학, 도서출판 솔로몬, 1993.
- 정정숙, 기독교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 \_\_\_\_\_, 기독교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0.
- \_\_\_\_\_,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 \_\_\_\_\_, 인간발달과 상담(1),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6.
- \_\_\_\_\_, 인간발달과 상담(2),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6.
- \_\_\_\_\_,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83.
- 정준모, 칼빈: 교리교육과 현대 교육목회론, 서울: 은혜출판사, 2003.
- 한춘기, 기독교교육신학(1),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 번역서적

- 노르만 하퍼,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 레티 M. 러셀,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로날드 S.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루이스 J. 세릴, 만남의 기독교교육, 김재은·장기욱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리차드 R. 오스머,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마리아 해리스,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D. L. 무디, 성경공부의 기쁨과 유익 승리하는 기도 승리하는 생활, 이길상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벤자민 B. 워필드, 칼빈·루터·어거스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2.
- 아이리스 V. 켈리, 성경과 기독교교육,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안토니 A. 후크마, 성경이 가르치는 자아형상, 정정숙 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 제임스 D. 스마트,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육협회, 2000.
- 존 칼빈, 기독교강요 (下),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_\_\_\_\_, “사둘레토에의 답신 성만찬 소고”, 칼빈 작품선, 박건택 편역, 서울: 바실래, 1989.
-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T. H. L. 파아커,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 찰스 G. 샤플, “장년교육”, J. 에드워드 해익스 편, 기독교교육학 개론, 정정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페리 G. 다운즈, 기독교교육학 개론, 엄성옥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8.
- 하워드 헨드릭스 & 윌리엄 헨드릭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정현 역, 2003.

### 정기간행물

- 강 희천, “교회교육의 문제 그 분석과 과제”, 목회현장과 성서연구, 제8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유니온 학술자료원, 1988.
- 고용수, “한국교회 성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서원, 1993. 6.
- \_\_\_\_\_, “평신도 교육의 과제와 방향 : 교회의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신앙세계, 서울: 신앙세계사, 1992. 7.
- 손삼권, “기독교교육의 현실과 전망”,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
- 은준관, “목회 파트너로서의 평신도”, 월간목회, 서울: 월간목회사, 1996. 1.
- 정일웅, “Calvin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신학지남 223, 서울: 신학지남사, 1990. 3.
- \_\_\_\_\_, “평신도 리더십 개발”, 월간목회, 서울: 월간목회사, 1996. 9.
- 정정숙, “성경적 상담과 교육목회: 교사와 목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224, 서울: 신학지남사, 1990. 6.
- 한춘기, “총체적 사역으로서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논총 제6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